지출 경비 돌려받는 '완도 반값여행' 계속된다

군, 내일부터 5차 접수…9월 1~30일 프로그램 운영
숙박·식당·카페·특산품 판매장·마트까지 지원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 '완도 반값 여행'의 흥행을 이어간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26일부터 '완도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당, 카페 이용, 체험, 특산품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5차 사전 신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근 지역인 강진·해남 등의 지역 주민들은 제외한다.

특히 9월부터는 관광객의 여행 소비 형태, 이용 편의성, 타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트 등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만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 5인 이상 가족과 단체는 최대 50만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일 이전에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완도 관광지에서 신청자와 동반인 포함 촬영 사진 2장 이상과 숙박·식당·카페·특산품 판매장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누리집을 통해 증빙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 반값 여행·완도군 누리집(고시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4차 신청 때 조기 마감으로 기회를 놓친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해 완도에서 힐링 여행을 즐기고, 여행 경비도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연간 200t 공급…농가 '호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농·축·수산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사업'이 원활한 공급 체계와 우수한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배양실은 현재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클로렐라 등 총 5종의 고품질 미생물을 연간 200t 이상 생산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공급 미생물은 토양 환경 개선, 병해충 억제, 생육 촉진뿐만 아니라 축사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미생물을 찾는 농가들의 발길이 매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한 무인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수령 절차를 간소화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여름철 폭염을 피해 이른 시간부터 영농 활동을 시작하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공급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 30분으로 조정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축·수산업인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 강진=이진묵 기자

해남, 결혼이민자 자립성장 돕는다

자격증 취득반 운영…"지역사회 구성원 자리매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정보기술자격(ITQ) 자격증 취득반 과정을 운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정보기술자격 자격증 취득반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주 3회, 총 48회에 걸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컴퓨터 기초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서 작성, 자료 관리, 발표 자료 제작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디지털 직무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취업 소양교육, 평가회도 운영해 자격취득 이후 진로와 취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습득한 디지털 역량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교육과정 출석률 80% 이상과 자격 취득률 70% 이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실시, 이를 통해 참여자의 자격취득 성취감과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취업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재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한국어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군비를 추가 편성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등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되는 언어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결혼이민자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데 뜻깊게 쓰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노담버스'와 함께하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보건소는 24일 트윈스타 행정타운에서 어린이집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아기부터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서남해 해양안전체계에 진도해양경찰서 필수"

군, 신설 추진…관할 이원화 해소·골든타임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해양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진도해양경찰서' 신설을 추진한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남해권 해양치안과 구조·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청사와 전용부두 확보, 관계기관 건의,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진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장 10명과 읍·면장 7명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으며, 총괄·청사지원·부두지원·홍보협력·지역협력·재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247개의 섬과 720.68㎞의 해안선, 항만·어항 111개소, 어선 2851척 등 광범위한 해양·수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진도군 해역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로 나눠 관할되고 있어 해양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진도군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628건, 선박사고 295건, 민원신고 617건이 발생했으며, 해양범죄도 2020년 42건에서 2024년 81건으로 증가하는 등 해양치안·안전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이원화된 관할체계를 일원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남해권 해양구조·치안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진도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목포 관광시설 군 장병 할인 일반캐빈 등 입장료 2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지역 내 군 장병의 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시설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자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모자아트갤러리 등 주요 유료 관광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시설별 20~50%의 입장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관광시설인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삼학도크루즈에서도 해군 제3함대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별도의 할인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제3함대 소속 장병에게 일반캐빈 4000원, 크리스탈캐빈 5000원을 할인하며, 최대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학도크루즈는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하고 최대 4명까지 적용한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